

취약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선방안 연구 : 캐나다와의 비교

Study of Improvement Plan for the Employment Support Program to Promote Self-Reliance of the Disadvantaged Youth: Compared to Canada Case

이승희, 김린아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Song-Hee Lee(sunny_3000@hanmail.net), Rin A Kim(mswra@naver.com)

요약

본 논문은 국가차원에서 취약청소년 취업지원을 위해 다양한 개입전략 및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장기간 수행해왔던 캐나다 고용 및 사회개발부 'Skills Link'와 우리나라 여성가족부 꿈드림센터의 '두드림' 사업과 비교·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취약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발전방안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각 국의 취약청소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사업배경 및 목표, 참여대상 및 선정기준, 사업내용, 지원기간 및 지원 비용, 사업 효과를 중심으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참여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며, 둘째,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지원 기간 및 비용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한 제언으로는 자립전환기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해야 하며, 취약청소년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이 필요하겠다. 또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원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며, 자립지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청소년의 동기부여와 기업의 참여 유도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취약청소년 | 취업지원 | Skills Link | 두드림 |

Abstract

The theses is an analytical comparison research between 'Skills Link' and 'Do Dream' : the former is an effective program to establish a variety of intervention strategies and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employment support of disadvantaged youth, performed by ESDC in the level of the nation, and the latter is the program which is carried out by K-Dream Center of MGEF in South Korea. As for the research method, comparison and analysis have been fulfilled, focusing on the employment support program. The research includes program background, goal, participation subject, selection standard, program contents, support period, support cost, and program effect. It suggests that we should design the systematic program for the youth in the transition to independency and perform constant support. It is necessary to select beneficiary on the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and situation of the disadvantaged youth.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secure consistency of the program and enlarge the support period. For the sake of successful performance of the independent living program, it is a necessity to motivate the youth and introduce the ways to encourage the business sector to take part in.

■ keyword : | Disadvantaged Youth | Employment Support Program | Skills Link | Do Dream |

I. 서론

학업중단, 가출, 시설보호 및 퇴소 청소년, 빈곤청소년 등 취약청소년의 경우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학령기때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즉, 취약청소년의 경우 개인 또는 사회·환경적 문제로 인해 불건전한 노동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저임금 구조나 직업훈련 부족 등으로 인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악순환의 고리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1][2]. 따라서 취약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건전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성인을 위주로 실시되고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경우도 그 대상자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일부 관련 부처나 민간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도 일반 청소년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기간 또한 매우 단기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제공됨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입을 준비하는 취약청소년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실질적 프로그램의 효과를 얻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2][3]. 더욱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들은 부모의 지원과 정규교육을 전제로 구성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어서 학교 밖 청소년이나,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자 등 취약청소년에게 적용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2][4].

이처럼 취약청소년의 취업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상당히 완화해 줄 수 있으며 장래를 위한 준비과정이 되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취약청소년 관련 정책은 주로 비행을 막고 복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또한, 직업훈련을 받더라도 단기간 참여를 통해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며, 직업훈련 이후 취업까지의 실질적인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들어 2014년 5월 28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기존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지원해 온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하여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비진학 청소년’으로까지 정책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2].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한 취약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약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대부분 단기적인 직업상담 및 직업체험이 주 내용이며, 직업기초능력 파악과 직업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지원설계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취약청소년을 중심으로 자립지원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대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꿈드림센터의 ‘두드림’사업과 캐나다 고용 및 사회개발부(ESDC) ‘Skill Link’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발전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Skill Link’ 프로그램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캐나다에서 매우 성공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 차원에서 취약청소년의 취업지원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구축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에서는 검토된 적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kills Link’의 주요 사업 대상과 유사하며 취약청소년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꿈드림센터의 ‘두드림’ 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취약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다양한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취약청소년 취업지원 연계 프로그램인 여성가족부 꿈드림센터 ‘두드림’사업의 사업배경 및 목표, 참여대상(연령 및 선정기준 등), 사업내용(프로그램 구성 등), 지원기간 및 지원 비용은 무엇인가?

둘째, 캐나다의 취약청소년 취업지원 연계 프로그램인 고용 및 사회개발부 ‘Skills Link’사업의 사업배경 및 목표, 참여대상(연령 및 선정기준 등), 사업내용(프로그램 구성 등), 지원기간 및 지원 비용은 무엇인가?

셋째, 캐나다의 ‘Skills Link’사업이 우리나라 ‘두드림’사업의 취업연계 프로그램의 변화와 향후 발전을 위한

발전방안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취약청소년 개념 및 유형

취약청소년이란, '적절한 가정의 돌봄이 부족하여 심리·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처해있고, 이로 인해 교육 및 고용 기회로부터 배제될 수 있는 청소년'을 의미한다[5]. 기존 선행연구를 토대로 취약청소년을 집단유형별로 그 특징과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네 유형으로 구분된다[5][6]. 첫째, '학업중단 청소년'으로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사망, 전학 이외의 개인, 가정, 학교, 사회적 이유 등으로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을 뜻하며, 약 76,589명으로 추산된다[7]. 둘째, '시설보호 및 퇴소 청소년'으로 가정해체나 비행문제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정을 떠나 보호·복지·교정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퇴소한 청소년을 뜻하며, 약 19,420명으로 추산된다[5]. 셋째, '가출청소년'으로 가정의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보호자나 제도적 보호에서 제외되었거나, 양육자로부터 버려졌거나, 장기가출 등으로 거리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청소년을 뜻하며, 약 23,427명으로 추산된다[6]. 넷째, '빈곤 청소년'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 차상위계층 및 비수급 빈곤층 가정의 청소년을 뜻하며, 약 643,627명으로 추산된다[5].

2. 취약청소년 자립지원 특성 및 취업지원 현황

국내 취약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시설보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11]. 취약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취약청소년들은 심리·정서적 어려움, 자립에 대한 동기와 목표의식 결여, 불안정한 주거, 저학력이나 학력단절, 직업진로 정보 부족, 사회성 결여, 일상생활기술 부족, 경제관념 희박 등 사회진출을 어렵게 하는 특성들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이 외에도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향은 있으나, 실제로 참여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부 선행연구를 통해 취약청소년의 자립지원 관련 특성 및 현황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취약청소년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실제 운용되고 있는 선진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구체적인 우리나라 취약청소년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발전방안을 도출한 국내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임에 따라 해외 운용사례와의 비교 연구 또한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취약청소년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차원으로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사업이 일부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의 경우 학업중단승려제, Wee-Project, 등 주로 학교중단 예방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및 자립 지원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각 부처의 핵심 정책대상은 부처의 성격과 소관 업무에 따라 취약청소년을 포괄하는 범위에 차이가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한 위기청소년이라 하여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취약청소년을 지칭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이미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과 잠재적인 학교중단 청소년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무직·비진학 청소년이라 하여 학교 밖 청소년 개념이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학교를 중단한 빈곤청소년 지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취약청소년의 자립지원 인프라와 관련하여 국내 주요 자립지원시설은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국적으로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시설종류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자립생활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청소년그룹홈,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자활지원관 등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초점이 되는 여성가족부 꿈드림센터에서는 학업중단 및 시설퇴소 등 취약청소년의 학업복귀나 자립준비를 돕기 위해 두드림·해밀 프로그램이 통합 운영되고 있다[5].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 고용 및 사회개발부의 'Skills Link'와 우리나라의 꿈드림센터의 '두드림'사업을 사업 배경 및 목표, 참여대상(연령 및 선정기준 등), 사업내용(프로그램 구성 등), 지원기간 및 지원 비용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취약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취업연계 프로그램의 지원 방안에 대한 발전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는 현재까지 두드림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제도 도입 초기인 시점으로, 세부적인 이슈나 과정, 산출, 성과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하기에는 기초자료가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기본 틀에 맞추어 분석·기술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았으나, 꿈드림센터의 취업연계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및 개선을 위해 프로그램의 다양한 내용이 검토되어야 하는 시점에 따라 캐나다 Skills Link의 내용 전반에 관한 비교·분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IV. 캐나다의 취약청소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

Skills Links

캐나다의 고용 및 사회개발부(ESDC :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에서는 '청소년 고용 전략(Youth Employment Strategy : YES)'을 수립하여 취약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8][9]. 이 중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중점 수혜대상으로 삼았던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Skills Link' 프로그램이다. Skills Link 프로그램의 경우 실질적인 수혜자 중 상당수가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이거나 중퇴했다가 복학한 청소년들이며, 이 프로그램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캐나다에서 매우 성공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1. 사업배경 및 목표

Skills Link는 고용주와 기업이 노동시장의 장벽에 직

면한 청소년들의 개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으로 개인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장기간 동안 포괄적인 범위의 체계적인 활동을 제공한다[8]. 이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의 기회와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적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배양시키고 있다[4]. 즉, 청소년들이 노동 시장 참여 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업무 경험 등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노동의 질과 숙련도를 높여 미래의 산업 환경에 적합한 노동력을 육성하는데 프로그램의 목표를 두고 있다.

2. 참여 대상 및 선정 기준

Skills Link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 취약 청소년을 선정하는데는 다양한 요인이 고려된다. 첫째, 참여대상과 관련하여 연령기준 15~30세까지이며, 캐나다 시민, 영주권자 또는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 중 학교중퇴자,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않는 무직자, 고용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자 등으로 그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하여, 이민자 청소년, 장애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청소년, 원주민 청소년을 비롯 도시나 농촌에 국한됨이 없이 대상을 포괄적으로 선정하고 있다[8]. 그러나, 가장 중점적인 지원 대상은 바로 '위험에 직면한 청소년'이며 주로 20세 미만의 중퇴생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둘째,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으로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비롯하여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의 다양한 내용을 검토한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미졸업, 장애인, 원주민 출신, 소수 민족, 건강, 약물 및 알코올 관련 문제, 농촌 또는 외곽에 거주, 한부모 가정, 낮은 수준의 읽고 쓰기와 수리 능력, 언어 장벽,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노숙자 또는 노숙자가 될 위험, 사회적 지원의 부족, 자신의 행동 관리능력의 결여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어 선정되도록 하고 있다[8][9].

3. 사업내용 (프로그램 구성)

Skills Links는 취약 청소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

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직업훈련, 직업경험 등을 제공한다. 또한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지역사회 기관 및 조직에 대해 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4][8][9]. 이 프로그램은 총 4 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고용능력 훈련 단계’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직업 훈련 기술을 익힌다. 2단계는 ‘사회봉사 통한 고용능력 배양 단계’로 공익사업을 통해 일과 인간관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단계는 ‘직업체험을 통한 고용능력 배양단계’로 회사 등에 실제로 취업하여 인턴십 과정을 실시하는 것이다. 끝으로 4단계는 ‘취업단계’로 청소년이 직접 고용계약을 맺고 취업하는 것으로, 이때 고용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4. 지원기간 및 지원비용

프로그램의 경우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6개월 내에 직업훈련교육부터 취업까지 하기는 어려우므로 최대 총 3년까지 지원을 연장하고 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의 경우는 평균 6개월이며, 최대 지급기간은 1년까지이다 [8][9]. 이와 함께 프로그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매 단계마다 일정액을 용돈 혹은 임금 형태로 지불하여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동기부여 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시간당 용돈 형태로 지급되며, 최대 24주간 \$12,000(1,018만원)를 초과할 수 없다. 2단계 사회봉사 통한 고용능력 향상 단계에서도 용돈 형태로 시간당 임금이 지급되는데, 최대 52주 동안 \$25,000(2,121만원) 이내에서 이루어지며, 본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추가 금액이 지급된다. 3단계의 인턴십 단계에서는 임금 형태로 지급되며, 1, 2단계 보다 실질적으로 적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 실업수당과 연금수당의 수혜가 주어진다. 4단계의 취업 단계에서는 고용계약에 의한 정식 급여가 지급된다 [8-10].

V. 우리나라 취약청소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

여성가족부 꿈드림센터 ‘두드림’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에서는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4.5.28)」에 따라 취약청소년을 위해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기관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한 취약 청소년의 적성과 진로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자원 개발 및 연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1][12].

1. 사업배경 및 목표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활용하여 상담, 보호, 의료,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학업복귀, 사회진입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들을 설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드림에서는 사회진입 원하거나 자립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자립기술과 사회진출에 필요한 직업 체험, 진로 교육, 직접적인 경제 활동 참여나 취업연계 및 기술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2][13].

2. 참여대상 및 선정 기준

첫째, 참여 대상은 만 9~24세의 사회적·심리적 위기·취약계층 청소년으로 자립이 필요하나 사회진출 및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학업중단 숙련대상 등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포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2]. 이 외 별도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사업내용 (프로그램 구성)

두드림 프로그램은 초기면접이후 취업지원 욕구가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2단계의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거쳐 사회로 진입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1단계 기초과정은 ‘자립준비 과정’으로 직업탐구, 경제교육, 주거, 생활, 건강관리, 미래, 꿈 설계 등을 하는 과정이며, 2단계 심화과정에서는 ‘자립기술 습득 과정’(직업체험, 진로종합캠프 등), ‘학습역량 향상 과정’

(자격취득 지원, 직업훈련 연계, 취업 및 인턴 지원)으로 구분되어 최종 취업성공 및 자격증 취득, 인턴십 참여 등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12]. 이외에도 서울시 청소년지원센터 및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여성가족부 사업과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 및 축제, 해외봉사활동, 스킨스쿠버, 청소년아트 프로젝트, 직업체험 등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4. 지원기간 및 지원비용

프로그램은 단계별로 5일, 1~2일 등 비교적 짧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하는 동안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이용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두드림에서는 별도의 보조금을 프로그램별 또는 프로그램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자격증 취득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심화과정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를 연계시켜 단계별 참여수당 및 훈련비, 훈련수당, 취업성공 수당을 주는 경우도 있으나, 이처럼 부처 간 연계를 통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하는 사례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VI. 캐나다와 한국의 취약청소년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연계 프로그램 비교 분석 결과

취약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캐나다 사례를 선정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는 사업배경 및 목표, 참여대상 및 선정기준, 사업내용 및 운영방식, 지원기간 및 지원비용을 비교·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배경 및 사업목표와 관련하여 캐나다의 경우 중점 수혜대상으로 고용 장벽에 직면한 취약청소년들의 개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Skills Link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취약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일련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단계별로 진행하고,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의 질과 숙련도를 높여 미래 산업의 노동력을 육성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두드림’ 사업을 통해 사회진입을 원하거나 자립을 필요로 하는 취약청소년들에게 자립기술과 사회진출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취업을 촉진하고 자립을 지원하고자하고 하는 점에서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 이용자 중심의 개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장기간 동안 포괄적인 범위에서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여대상 및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Skills Link의 경우는 주로 20세 미만의 취약청소년 중 중퇴생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비롯하여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평가기준이 고려되어 선정되도록 하고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 두드림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사업 참여 대상 선정 시 다양한 요인보다는 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을 비롯하여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등 제한적인 요인만 고려되어 선정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업내용 및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Skills Link는 4단계로 고용능력 훈련에서부터 취업단계로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이때 취약청소년의 고용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두드림의 경우 참여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 중심적 교육을 시행하고자 노력하고는 있으나, 프로그램이 총 2단계이며 1단계 5일, 2단계 12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차이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Skills Link의 경우 취약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해 장기프로젝트에 연계하여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 보조금 지급의 문제, 지역사회 직업훈련 및 직업 연계 기관 부족, 취업시장 부족, 관리 인력 부재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여전히 두드림 사업이 불안정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지원 기간 및 지원비용과 관련하여 Skill Link는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취약청소년 취업 및 고용 연계서비스의 특성상 단시간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시 프로그램의 경우 총 3년까지 지원을 연장하여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매 단계마다 일정액을 용돈 혹은 임금의 형태로 지불함으로써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두드림의 경우 5일, 1~2일 등 비교적 짧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Skill Link에서는 프로그램 단계별로 지원 비용을 마련하여 취약청소년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두드림의 경우 프로그램 단계별로 별도의 지원 비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부 두드림 심화과정의 경우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를 연계시켜 단계별 수당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나 이처럼 부처 간 연계를 통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사례는 매우 찾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캐나다의 Skills Link와 한국 두드림 사업을 비교·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캐나다 'Skills Link' 와 한국 꿈드림 '두드림' 사업 비교

구분	취약청소년 자립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캐나다	한국
관련 부처	고용 및 사회개발부(ESDC)	여성가족부
프로그램명	'Skills Link'	'두드림'
사업 배경 및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고용 전략(Youth Employment Strategy : YES)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의 취업지원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14.5.28) -취약계층, 위기,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의 질과 속련도를 높여 미래의 산업 환경에 적합한 노동력을 육성 -고용 장벽에 직면한 청소년들의 개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심리·사회적 특성과 욕구에 부합한 상담, 보호, 의료,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 진입 지원
대상	연령	15~30세까지 (※ 주로 20세 미만 중점)
	참여 대상	만 9세~24세 청소년 (※ 주로 15~24세까지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중단자,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않는 무직자, 고용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자 등 (※ 중퇴생을 우선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업중단자, 학업중단 숙려대상 청소년, 보호·복지·교정시설 청소년, 기타 가정 외 보호 체계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구분	취약청소년 자립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캐나다	한국
대상 선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통계학적,사회경제적 요인 등 고려 (※ 예: 고등학교 미졸업, 장애인, 소수 민족, 건강, 약물 및 알코올 관련 문제, 농촌 또는 외곽에 거주, 한부모 가정, 낮은 수준의 읽고 쓰기와 수리 능력, 언어장벽,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거주자, 노숙자 또는 노숙자가 될 위험, 사회적 지원의 부족, 자신의 행동 관리능력의 결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면접을 통해 욕구에 따른 참여 대상자 선정
사업 내용 (프로그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 고용능력훈련(employable skills training) 단계 2단계 : 사회봉사 통한 고용능력 배양(employable skills with community service) 단계 3단계 : 직업체험을 통한 고용능력 배양(employable skills with work experience)단계 (※ 인턴십 과정) 4단계 : 취업(work experience) 단계 (※ 청소년이 직접 고용계약을 맺고 취업하며, 고용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정부에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 기초과정(자립준비 과정) -직업탐구, 경제교육, 주거, 생활, 건강관리, 미래, 꿈 설계 등 2단계 : 심화과정 -자립기술 습득과정 : 직업체험, 진로종합캠프 등 -학습역량 향상 과정 : 자격취득지원, 직업훈련 연계, 취업 및 인턴 지원 등 사회진입 -취업, 직업훈련, 자격증취득, 인턴십 참여 등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등)
지원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필요시 총 3년까지 지원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 중심적 교육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단계별로 5일, 1-2일 등 비교적 짧은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원 기간 및 지원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매 단계마다 일정액이 용돈 혹은 임금 형태로 지불되어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동기부여 하고 있음. -1단계 : 시간당 8\$가 용돈 형태로 지급 -2단계 : 용돈 형태로 시간 당 임금 지급 -3단계 : 임금 형태로 지급, 실업수당과 연금수당의 수혜가 주어짐. -4단계 : 고용계약에 의한 정식 급여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 중심적 교육을 시행하고는 있으며, 이용자 부담은 거의 없음. 단,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어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이용자 자부담이 있는 경우도 있음. 다만, 자격증 취득비, 검정고시 지원비 등 일부 필요 경비 지원

VII. 제언

취약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 Skills Link와 우리나라 두드림 사업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취약청소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참여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며,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지원 기간 및 비용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프로그램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배경 및 목표와 관련하여, 자립전환기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Skills Link에서는 취약 청소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장기간 동안 포괄적인 범위의 체계적인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직업훈련 기회와 취업 관련 정보 제공, 직업체험 및 기술 습득, 인턴십 등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단계별로 진행하는 등 노동의 질과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보호체계를 떠나는 취약 청소년에 대해서도 일상생활관리, 주거, 직업, 학업, 건강, 경제관리, 사회기술 등 다양한 자립준비 영역에 대한 교육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두드림 사업의 경우에도 성인기로의 사회진출 단계에 있는 자립전환기 취약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사회진출 및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장기간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참여대상 및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취약청소년의 특성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이 필요하다. Skills Link의 경우 20세 미만의 중퇴자를 주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욕구에 따라 프로그램별 참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었다. 또한, 고등학교 미졸업, 장애인, 원주민 출신, 약물 및 알코올 관련 문제, 시설 거주, 낮은 수준의 읽고 쓰기 능력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측면과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포괄하는 다양한 선정기준을 가지고 참여대상을 평가하고 선정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두드림의 경우 취약청소년의 다양한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기 보다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인구통계학적 요인 외 다양한 선정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상자 선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프로그램별로 차별화된 대상자 선정기준을 가지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사업내용 및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원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다. 캐나다

Skills Link의 경우 장기프로젝트에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업교육 후 취업이 연계되어 근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기제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업내용 측면에서도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직업탐구, 직업체험, 자격취득, 취업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4단계별로 제공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두드림의 경우 청소년기라 하더라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연령대가 폭넓게 분포되어 있기에 각 연령대별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몇 개월 이내에 취업에 이르는 어렵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취업 지원을 하는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원기간 및 지원비용과 관련하여, 자립지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소년의 동기부여와 기업의 참여 유도 방안을 도입·확충해야 할 것이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대다수가 경제적 빈곤층이라는 특성상 직업훈련교육과 취업에 대한 청소년의 욕구는 매우 높다. 그러나 직업교육, 자격증 취득, 인턴십, 취업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과정은 장기간의 노력과 비용을 필요로 하여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도 쉽게 발생할 수 있다. Skills Link의 경우 청소년의 동기부여를 위해 용돈 형태의 임금 지급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을 고용하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동기부여를 위한 프로그램 단계별 인센티브 지급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적 빈곤 청소년들에 한해서는 생계비 부담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취약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발전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무엇보다 취약청소년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이들을 존중하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배움터를 경험삼아 그들이 원하는 다양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 지역사회 주민, 지자체 및 정부부처의 관심과 배려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전경숙, “외국의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 The HRD REVIEW, 제8권, 제3호, pp.112-123, 2005.
- [2] 김자경, 김지연, 김정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연구 :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및 프로그램 구성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 [3] 조성호, 최해연, 박성현, *위기청소년 자립지원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2008.
- [4] 변숙영, 이수경, 이종범, *취약청소년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실태와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 [5] 황순길, 조규필, 박현진, 김범구, 황수진, 신정란, 윤재희,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통합모형 개발*,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3.
- [6] 신혜령, “시설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11권, 제1호, pp.90-124, 2001.
- [7] <http://kess.kedi.re.kr/index>
- [8] <http://www.servicecanada.gc.ca/~skillslink>
- [9] http://www.youth.gc.ca/~skills_link
- [10] 전경숙, 이아름,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3.
- [11] 여성가족부, *2016년도 청소년사업 안내*, 2016.
- [12] <http://www.kdream.or.kr/>
- [13] 서정아, 권해수, *취약계층 청소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학교 중단 청소년의 취업자립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저 자 소 개

이 송 희(Song-Hee Lee)

정회원



- 2007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석사)
- 2014년 3월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과정)

<관심분야> : 장애인복지, 고용, 정신보건

김 린 아(Rin A Kim)

정회원



- 199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석사)
- 2011년 9월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과정)

<관심분야> : 의료사회복지, 만성질환, 취약계층